

**Korean A: language and literature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 : langue et littérature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 lengua y literatura – Nivel medio – Prueba 1**

Wednesday 10 May 2017 (afternoon)  
Mercredi 10 mai 2017 (après-midi)  
Miércoles 10 de mayo de 2017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n analysis on one text only.
-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e analyse d'un seul texte.
- Vous n'êtes pas obligé(e) de répondre directement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souhaitez.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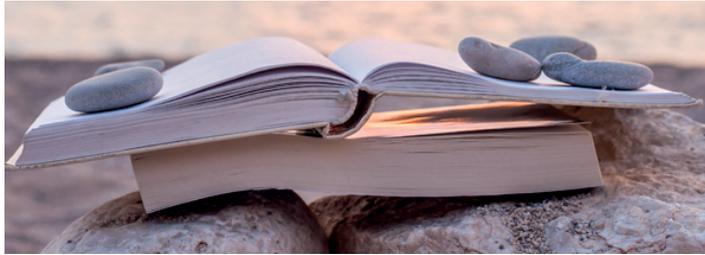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análisis de un solo texto.
-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de orientación que se incluyen, pero puede utilizarlas si lo desea.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다음 중 하나를 골라 분석하시오. 문맥, 독자, 목적, 형식과 문체의 특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텍스트 1

### 일상, 시(詩)가 되다

2016.05.19. 10:0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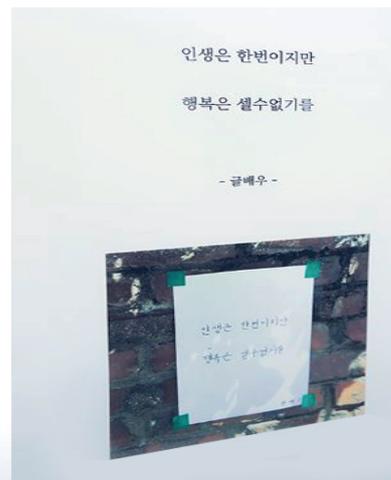
짧은 몇 마디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시(詩)’ 아닐까 합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시 한 구절에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하고, 따뜻함도 느낄 수 있으니 말이죠. 1980년대만 하더라도 ‘시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시집이 밀리언셀러로 등극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인기가 한동안 주춤하더니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SNS 글쓰기 열풍을 타고 ‘SNS 시’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까지 등장했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짧은 글로 표현하며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고 있죠.  
<중략>

#### SNS, 시를 쓰다

10

시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SNS 공간이 생겨나면서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짧은 글을 붙인 콘텐츠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SNS 시’라는 새로운 트렌드까지 만들며 시 열풍을 이끌고 있죠.

왜  
이환천  
매날천날  
컨디션은  
퇴근하면  
최상일까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전시실에서 열린 ‘SNS 시인시대展’(이미지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15 SNS 시의 특징은 짧지만 재치 있으면서도 공감을 자아낸다는 점인데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1월 ‘SNS 시인시대 전(展)’을 열어 SNS를 통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SNS 시인’이라 불리는 하상욱의 ‘서울시’, 최대호의 ‘읽어보시집’, 글배우의 ‘걱정하지 마라’ 등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 이처럼 SNS 시가 독자들의 공감을 받는 데는 일상, 추억 등의 소재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반전 화법이나 감성적 언어로 풀어내 특히 젊은층들이 좋아하죠. 일러스트나 만화, 사진 등을 함께 곁들여 이해하기 쉽다는 점도 SNS 시의 인기 비결. 대표적인 SNS 시인 하상욱, 글배우, 이환천 등은 실제 SNS를 통해 시를 선보이며 독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죠.

25 SNS 시의 또 다른 형태로 ‘디카시(dica-poem)’라는 장르도 탄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시가 결합된 형태를 말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글과 함께 SNS에 올리는 일이 익숙하실 텐데요. 디카시는 본 것을 찍고, 느낀 것을 문자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독자들도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30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짧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독자들이 시에 반응한 것도 아마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뿐이겠습니까? 마음의 위안을 주고, 톡톡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까지 만들어 주니 점점 빠져들 수밖에요. 그 짧은 문장에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다 담겨 있는지 놀랍기만 한데요.

35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생활 속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일상의 소재들을 꺼내 시 한편 써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건 몰라도 낙서하듯 끄적이다 보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http://blog.cheil.com> (2016)

- 이 글에 사용된 그림/사진을 포함한 형식적 특징은 이 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논하시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시와 SNS 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텍스트 2

오피니언 칼럼 [우리말로 깨달다] 한 '설'을 먹다

조현용 교수 | iejhy@khu.ac.kr

승인 2016.01.22 16:03:07

5 한국인의 나이는 참 어렵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나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식 나이라는 말을 쓴다. 설명도 길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래도 늘 의문은 남는다. 왜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 1월 1일이 되면 이틀 만에 두 살이 될까?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다음날 해가 바뀌어 한 살을 더 먹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10 학자들은 한국인의 나이를 설명할 때 뱃속의 한 살을 이야기한다. 엄마 뱃속에서 1년을 지내니 한 살을 먹는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엄마의 몸속에 점지 되는 순간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아름다운 사고가 아니냐고 주장한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라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의 몸을 떠나 어머니의 몸으로 온 순간 생명은 시작되었다는 생각이다. 일리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왜 ‘열 달’이 아니고 ‘1년’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긴 하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국제교육원 원장)

15 요즘 한국의 나이는 더 복잡해졌다. 왜냐하면 한국의 나이는 학년과 맞물려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빠른’ 나이가 생긴 것이다. 예를 들어 ‘빠른 96’과 ‘그냥 96’은 다른 나이냐 마찬가지다. 빠른 96은 보통 학교를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96보다는 한 학년 위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혼동이 될 것이다. 몇 살이냐고 물었다가 다시 질문해야 할 게 한 가득이다. 한국 나이예요? 20 만으로는 어떻게 돼요? 몇 년생이에요? ‘빠른’인가요?

이렇게 복잡한 우리의 나이 체계를 보면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나이를 세는 단위인 ‘살’은 ‘설날’의 ‘설’에서 왔다. 그래서 단순히 설명하자면 몇 번 ‘설’을 지냈는지가 내 나이가 된다. 누구나 똑같이 설을 지나면 나이를 먹기 때문에 생일하고는 상관이 없다. ‘몇 설을 지냈어요?’라는 질문이 사실 25 ‘몇 살이에요?’인 셈이다. 여기에 뱃속의 1년을 더하니 복잡해진 거다. 그래서 이틀 만에 두 살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뱃속의 나이냐 ‘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30 한국 사람에게 나이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특히 존댓말과 관련해서는 나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나이 때문에 존대의 서열이 정해지고 그래서 싸우기도 한다. 물론 존댓말이 나이 때문에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위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이가 적어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반말을 할 수 없다. 또한 친분 관계도 존댓말의 원인이 된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반말을 했다가 큰일 난다. 모르는 중고등학생에게 함부로 반말하지 마라. 큰일 나는 경우가 있다.

- 35 나이는 친구를 사귀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말에서 호칭은 친족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이 그대로 호칭이 된다. 나이에 따라 이런 호칭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사용된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동생’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요즘에는 ‘동생’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순간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요즘 젊은 사람은 ‘동생’이라고 잘 안 부른다.
- 40 나이가 사람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특히 친구를 사귀는 데 나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친구인데도 자꾸 나이를 따지기 때문이다. 사실 옛날에는 친구 사이에 나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다섯 살 정도의 차이는 그대로 친구가 되었고, 그 이상도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는 사이가 되면 친구인 것이다. 나이에 얽매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서는 안 된다.
- 45

조현용, *재외동포신문* (2016)

- 나이와 관련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이 글의 언어적 특징을 설명하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글쓴이가 의도한 목적을 잘 드러내는지 설명하시오.
-